

조선후기 한글대하소설 속 여성의 시작(詩作) 양상과 그 소통

-〈소현성록〉, 〈유씨삼대록〉, 〈명행정의록〉을 대상으로

서정민*

차례

1. 서론
2. 여성 시재(詩才)에 대한 인식과 창작의 계기
 - 2.1 여성 시재(詩才)에 대한 인식
 - 2.2 창작의 계기
3. 여성 작시(作詩)의 소통
 - 3.1 내외 분별의 예각화
 - 3.2 병풍의 제작을 통한 보존
4. 의의 및 결론

국문초록

본고는 조선후기 향유된 한글대하소설을 대상으로 작중에 형상화된 여성의 시작(詩作) 활동과 관련된 양상들을 살펴보고 그 의의를 논의한 것이다. 시를 짓는 것은 부덕에 어긋난다는 당대 현실 규범을 적절히 견제하면서 한글대하소설에서는 긍정적인 인물로 그리는 많은 주인공군 여성들의 시작 활동이 일상화된 모습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이런 가운데 여성 작시(作詩)의 소통과 관련한 구체적인 상황 설정을 보여줌으로써 여성 작시의 소통이 내외의 분별로 제한된다는 것 이상의, 보다 예각화된 소통의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

*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강의교수

다. 또한 한문학적 소양을 갖추고 시를 쓴 당대 현실 속 여러 여성들이 스스로 자신의 작품을 없애버렸다는 전형화된 기록의 양상과는 달리, 소설 작품 속에서는 그러한 함장(含章)의 덕에 대한 관심이나 고려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 나아가 소설에서는 오히려 여성들의 시로써 병풍을 제작하여 남기기도 한다는 점에서 현실과 작중 현실의 거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핵심어 : 조선후기, 한글대하소설, 소현성록, 유씨삼대록, 명행정기록, 여성, 한시

1. 서론

본고는 조선후기 한글대하소설 속에 나타난 여성들의 시작(詩作)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조선의 시라고 하면 한글 시문학의 전통에서 파악되는 시조나 가사를 우선 떠올릴 수 있고 특히 가사와 관련해서는 ‘규방가사’라는 하위 범주를 설정할 만큼 여성의 참여가 활발하였다. 그러나 본고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당대 주류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 한문학, 그 가운데서도 가장 큰 권위를 지녔던 한시를 여성들이 짓고 또 소통하는 양상이다. 나아가 본고는 한글 대하소설 속에 형상화된 여성 소작(所作) 한시의 소통 양상을 당대 여성, 특히 사대부가 출신 여성작가들의 한시 소통과 견주어 그 의미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는 조선후기 한글대하소설이 상층 사대부가 여성들을 주요 향유층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그 계층적 동일성이 고려된 것이다.

한글대하소설은 당대 문화지형도상에서 한글과 소설이라는 이중의 주변적 범주에 속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조선후기를 대표하는 문학 장르 중 가운데 하나로 꼽을 수 있을 만큼 한글대하소설은 많은 작품을 양산하며 두터운 향유층을 확보하였다. 여기에는 한글대하소설이 상층 사대부가 여성을 대상으로 한 교화론적 효용의 가치가 있다는 점 때문에 그

장르적 번성이 용인되었던 상황이 바탕에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한글대하소설의 장르적 조건을 감안할 때 이들 작품 속에 형상화된 여성의 시작(詩作) 활동이 당대 사회적 통념의 긴박에서 전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었을 것임은 쉽게 예견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조선의 여성들은 한자나 한문을 익히기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여기에 더하여 여성들이 시-한시(漢詩)를 짓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인식의 바탕에는 글쓰기는 물론 말하기에 있어서조차 무수한 유교적 규범들을 설정함으로써 여성들의 표현 자체를 억압하고 위축시키는 지배이념이 자리하고 있다. 그 결과 한자와 한문을 익히고 문학적 재능을 지녔던 것으로 자랑스럽게 기록된 여성들조차 그 기록의 말미에 이르러서는 스스로 자신이 지은 글이나 시를 없애버렸다는 것이 일반적이다.¹⁾ 짓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보다 더 여성들이 지은 한시 작품이 소통되는 것을 부정적으로 인식한 결과이다.

물론 ‘김호연재’를 비롯해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상층 사대부가 출신의 여성 한시 작가가 없는 것은 아니다.²⁾ 또 ‘강정일당’ 사후 그녀의 시문이 간행된 것처럼 필사의 차원을 넘어 그 작품이 공간(公刊)된 사례도 있다.³⁾ 그러나 이들의 존재는 결코 일반적인 것이라 할 수 없다. 그리고

-
- 1) 조선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제문 등에서 이같은 기록을 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경하, 『17세기 士族 여성의 한문생활, 그 보편과 특수』, 『국어국문학』140집, 국어국문학회, 2005; 박무영, 『여성시문집의 간행과 19세기 경화사족의 욕망-『정일당유고』의 간행을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33집, 한국고전문학회, 2008 참고).
 - 2) 박무영, 『『호연지유고』와 18세기 여성문학』, 『열상고전연구』16집, 열상고전연구회, 2002; 박무영, 『金浩然齋의 생애와 『호연지유고』』,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3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1; 구지현, 『김성달 집안의 문학적 공간과 교유』, 『열상고전연구』16집, 열상고전연구회, 2002; 구지현, 『시선집 『우진(宇珍)』과 김성달 집안의 여성문학적 전통』, 『열상고전연구』15집, 2002; 구지현, 『『安東世稿 附聯珠錄』소재 작품의 작가와 시작시기 및 이를 통해 본 김성달 집안의 詩作活動 樣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9집, 2004 참조.
 - 3) 박무영, 『여성시문집의 간행과 19세기 경화사족의 욕망-『정일당유고』의 간행을 중심

여기에는 그녀들의 시적 재능보다 그 시적 재능이 발휘되고 또 기록되어 남을 수 있도록 배려한 가문이 어찌면 더 필수적인 조건이라 할 수 있는데, 이같은 가문의 분위기는 조선의 현실 속에서 그야말로 예외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적 상황을 고려할 때 조선후기 상층 여성들을 주요한 향유층으로 하여 활발하게 소통되었던 한글대하소설 속 여성들이 시를 짓고 이를 소통하는 양상이 적지 않게 확인되는 것은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이들 소설 작품은 상층 여성에 대한 교화를 명목으로 소설부정론이 팽배했던 당대 사회에서 그 존재 의의를 인정받았다. 동전의 앞뒤처럼 이와 짝하여 당대 한글대하소설 독자들 역시 필사후기 등에서 이같은 교화, 교육적 측면에서 작품의 의의를 밝힌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위상을 지닌 한글대하소설 속에서 확인되는 여성의 시작(詩作) 활동과 그 소통은 예외적으로 남은 현실 속 사례들 못지않게, 어찌면 그보다 더 당대 독자적 현실에 밀착된 것이라 여겨진다.⁴⁾

이상의 관점을 견지하면서 본고는 조선후기 한글대하소설 가운데 <소현성록>, <유씨삼대록>, <명행정의록>을 주요 논의대상으로 한다.⁵⁾ 이들 작품은 구체적인 향유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기록을 가진 작품들이다. <소현성록>의 경우 권섭의 어머니 용인이씨가 남긴 소설 분배기의 기록을 통해 늦어도 17세기 후반에는 향유되었던 작품으로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점에서 한글대하소설의 초기작으로 널리 학계의

으로-], 『고전문학연구』33집, 한국고전문학회, 2008 참고.

- 4) 이와 관련하여 본고의 주요 논의대상 작품 가운데 하나인 <소현성록>이 독자들이 실천 가능한 여성 역할 모델을 형상화하고 있다는 조혜란의 논의는 좋은 참고가 된다 (『<소현성록>의 보여주기 서술과 그 의미』, 『한국고전문학연구』17집, 2008).
- 5) 본고의 논의 대상 작품 <소현성록>은 이대 소장본 15권15책, <유씨삼대록>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20권20책, <명행정의록>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본 70권70책이다.

관심을 모아온 작품이다.⁶⁾ <유씨삼대록>의 경우 온양정씨(1725~1799)가 필사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대 규장각 소장 <옥원재합기연> 권14 표지 이면의 소설 목록 가운데 확인된다.⁷⁾ <명행정의록>은 심능숙이 지은 한문본 <옥수기>를 한글로 번역한 남윤원이 그 발문에서 언급하고 있고, 또 홍희복이 청나라 이여진의 <경화연>을 한글로 옮긴 <제일기연> 서문에서 확인되어 늦어도 19세기에는 향유되었음을 알 수 있다.⁸⁾ 그런가 하면 현전하는 한글대하소설 작품 대다수가 발견되었던 낙선재본 소설의 20세기 마지막 독자라고 할 수 있는 윤백영 여사도 <명행정의록>에 대한 독서경험을 밝히고 있다.⁹⁾ 결국 이들 세 작품의 향유 시기는 한글대하소설이 장르적 생명력을 가졌던 시간 전체를 포괄한다. 이는 일차적으로 본고의 논의를 통해 드러날 여성의 작시(作詩) 양상이 한글 대하소설의 장르사적 흐름 속에서 특정 시기에 국한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여성의 시작(詩作) 양상과 관련해 이들 세 작품은 일정한 변별적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먼저 한시가 작품 중에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경우는 <명행정의록>뿐이다. 물론 이는 언해한시의 양상으로 제시된다. 한시의 음독구절을 쓰고 그 아래 해당 한시구의 풀이를 서술하는 방식이다.¹⁰⁾ <소현성록>과 <유씨삼대록>의 경우는 여러 여성인물의 시작(詩

6) 권성민, 『玉所 權變의 국문시가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92; 박영희, 『장편가문소설의 향유집단 연구』, 한국고전문학회 편, 『문학과 사회집단』, 집문당, 1995; 정길수, 『한국 고전장편소설의 형성 과정』, 돌베개, 2005 참고.

7) 심경호, 『낙선재본 소설의 선행본에 관한 일고찰-온양정씨 필사본 <옥원재합기연>과 낙선재본 <옥원중회연>의 관계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38호, 한국학중앙연구원, 1990 참조.

8) 심능숙, <옥수기>(김기동 편, 『필사본고소설전집』권11, 아세아문화사, 1982, 745~747쪽); 홍희복, 『제일기연』, 박재연·정규복 교주, 국학자료원, 2001, 21~24쪽.

9) <중앙일보>, 1966년 8월 25일자.

10) <명행정의록> 작중 한시의 전반적인 양상에 관해서는 서정민, 『<명행정의록>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6, 3장을 참고할 수 있다.

作) 양상을 서술하고 있지만 실제 한시가 작중에 제시되지는 않는다. 다만 <유씨삼대록>의 경우 구체적인 시 자체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여성의 시가 소통되는 양상과 관련하여 중요한 장면을 확인할 수 있고, <소현성록>의 경우 한시 음독구절은 없지만 한시구의 풀이 구절이 서술되어 있다.¹¹⁾

2. 여성 시재(詩才)에 대한 인식과 창작의 계기

2.1. 여성 시재(詩才)에 대한 인식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글대하소설 역시 여성의 시작(詩作) 활동과 관련한 당대 사회적 통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때문에 작품 중에는 여성의 시작 활동을 부정적인 것으로 여기는 인물의 발언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우선 주목할 점은 그러한 부정적 인식의 발화기 모두 여성, 그것도 작중 여러 상황에서 그녀들의 시작 활동이 확인되는 주인공군 여성들의 입을 통해서라는 것이다.

시를 부르며 운을 화호른 후부인의 김흔 경계라 첩이 숨가 깊이 죽히며
 곱혀 쇼학이 불민흐므로 유시로브터 음영흡이 업더니 <명행정의록 권5>
 음풍영월은 너즈의 쇼임이 아니라 (...) 더욱 손녀는 규슈니 엇지 외월흐
 미 이시리잇가 <명행정의록 권58>

앞의 인용문은 이월혜가 남편 위천보의 수창 제의를 거절할 때 발언이고, 뒤의 것은 위혜주가 외할아버지의 명을 받고 한 발언이다. 이들은 모두 그것이 여자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실제 작품

11) 권6에서는 소월영과 소현성 남매가 주고받은 시의 해석구가, 권12에서는 소월영이 조카 소수빙의 미인도를 그리고 그 아래 쓴 시의 해석구가 서술되어 있다.

안에서 이들 여성이 지은 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것을 감안할 때 이는 여성의 시작 활동을 부정하는 사회적 통념으로부터 이들을 주인공군 여성들의 거리두기를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명행정의록>에서는 주인공군 여성들의 발언을 통해 주로 여성의 시작(詩作) 활동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는 달리 <소현성록>의 경우는 여성으로서 하지 않아야 한다는 당위적 관점보다 스스로 할 능력이 없음을 밝히는 겸양의 어조를 보인다.

넘시디왈 규둥의 녀지 었디 음영흐는 지죄 이시리오 <소현성록 권9>
 소계 녹미를 느초고 안정히 디왈 규둥 잔약흔 녀지 방적슈션도 능티 못
 흐거늘 었디 집필햐야 가마귀 그리기를 알니오 군즈의 짐작히시미 즈못
 불명흔디라 만일 식즈를 알던대 두어 슈 즐영으로 빼내미 어려워 츄스하
 리잇가 <소현성록 권13>

앞의 인용문은 아름답지 못한 외모 탓에 결혼 후에도 남편 소운명의 마음을 얻지 못하던 임씨의 발언이다. 임씨는 작중에서 ‘선비와 군자의 모습’을 갖춘 여성으로 부각되는 인물이다. 그런 그녀를 두고 어느 날 소운명은 그녀가 시를 쓴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시를 청하고 이에 대한 임씨의 대답인 것이다. 뒤의 인용문은 소수빙이 그 남편 김현과 친정 오라버니들 사이에서 시짓기를 청하는 남편에게 답하는 발언이다. 혼인 후 남편 앞에서조차 시 짓기를 사양한다는 점에서 <명행정의록>의 이월혜와 동궐에 있다고 하겠으나 그러한 사양의 근거에 약간의 거리가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작품 안에서 이들 여성의 다양한 시작(詩作) 양상이 설정된 만큼 여성의 시작 활동이나 시재(詩才)에 대한 긍정적 견해 역시 공고하다.

녀즈의 글을 경계흐든 응구첩디햐여 경박흐를 피흐미니 (...) 녀즈의 글을 알고 시를 너이미 명에 당시의 낫하나고 지미 후세의 양흐느니 <명행

정의록 권58>

이는 앞서 본 <명행정의록>의 위혜주가 시 짓는 것이 여자의 소임이 아니라는 말에 대한 외조부 백양의 답변이다. ‘응구첩대하여 경박함을 경계하는 것’일 뿐이라는 것은 시를 짓는 태도에 있어서의 한 부정적 면모를 지적한 것이다. 이는 “필의 공교하고 시스의 찬란함은 오히려 창기의 본식이오 사부가 부녀의 횡홀 비 안니니라”¹²⁾에서와 같은 포괄적 부정의 태도와는 변별되는 인식이다. 시를 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에 있어서의 태도가 문제일 뿐이라는 것이다. 나아가 여자가 시를 익힘으로써 ‘명예’와 ‘재미’까지 “드러낼” 것이라는 말에서는 여성의 시재(詩才)에 대한 인정을 넘어 시작(詩作) 활동에 대한 보다 진전된 의식을 확인하게 한다.

이러하므로 작중 주인공군 여성들의 시적 재능을 두고서는 보다 확고한 우호적 관점을 드러낸다.

상세 사왈 하관이 만일 쇼네 녕낭의게 맛굿디 못홀딘디 엇디 감히 구흔
 흐리오 쇼네 잠간 네를 넓고 시를 외와 유한흔 덕이 잇는 고로 감히 옥슈
 의 의탁고져 흐는이다 <유씨삼대록 권1>

인용문은 장준이 자신의 딸로 유세형에게 구혼하는 과정에서의 청혼 발언이다. 딸의 시적 재능 자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시시경을 외우는 능력이 여성의 유한한 덕성 함양에 주요한 바탕이 된다는 것과 더불어 비록 혼인을 위한 자리이기는 하지만 아버지가 딸의 시재를 대외적으로 자랑하고 있다는 점은 여성의 시재에 대한 우호적 인식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다.

12) 이황, 『규중요람』,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백두현, 『조선시대 여성의 문자 생활 연구』, 『진단학보』97호, 진단학회, 2004, 142쪽 재인용).

[석과가; 인용자, 이하 동일] 스매로서 일복 화전을 내여주니 심이 바다 눈을 드러 혼 번 보니 필법이 비등하야 (...) 석패 웃고 왈 (...) 이 시 과연 녀즈의 소작이라 엇더케 지었뇨 싱왈 극진이 아름다오이다 석패 우왈 이런 지조와 괴특흔 얼굴을 곁흔 녀지 더 곳이 이시니 첩이 보기의 황홀하더이다 엇던 녀지런고 혜컨대 셔모의 친족이로다 꽤 디왈 연하이다 시랑 왈 그런 부인을 엇던 복된 재 어덧논고 그 가뵈 상덕더니잇가 <소현성록 권1>

인용문은 석과의 계교로 혼인 전 석숙난이 쓴 시를 보게 된 소현성이 감탄하는 장면이다. 주목되는 것은 것처럼 아름다운 시를 쓴 여인을 아내로 맞은 사람은 “어떤 복 많은 사람인가”하는 그의 질문이다. 시적 재능이 있는 아내를 맞는 것이 남성의 복이라는 소현성의 인식은 구혼 자리에서 딸의 시적 재능을 자랑하던 장준의 태도와 맥을 같이 한다. 이처럼 소현성의 발언을 통해 확인되는 여성이 시재(詩才)에 대한 호의적 태도는 그의 며느리 임씨를 통해 보다 구체화된 우호적 결과를 형상화하는 단계로 나아간다.

심[소운명]이 눈을 드러보니 연갑 우희 여러 당 시권이 노헛거늘 문득 님공의 지조 잇다 흐를 싱각고 (...) 심이 친히 나아가 연갑을 열고 그 여러 당 시부를 내어보니 임의갑 우희 운영이 어리고 필적이 농세 뛰노는디라 안정이 몬져 놀라더니 밋 느리보매 문테 쇠락하고 스의 청신하야 그 진짓 지죄라 즈가의 문장이 비록 투월하나 능히 밋디 못홀디라 대경대희하야 황망이 셔안을 터 칭찬 왈 모지며 모지라 약난의 직금되라도 오히려 상좌를 사양하리로다 드더여 필연을 나오혀 여러당 글을 차운하니 또흔 주옥과 금슬로디 쇼져의게 밋지 못하니 심이 칭찬하코 흠탄하며 또 깃거하야 차마 논의 노티 못하다가 (...) 더의 성덕과 문지를 공경하야 원앙금니에 나아갓거니 <소현성록 권9>

인용문에서 소운명은 아내 임씨가 여러 장 시권을 가지고 있음을 보고는 문득 장인이 아내에게 시재(詩才)가 있다고 했던 말을 떠올린다. 이어

소운명은 아내에게 쓴 시를 보여달라고 청하고, 마침내 아내의 시를 확인한 소운명은 그것이 자신의 재능을 훨씬 넘어선 경지라는 것을 깨닫는다. 박색이라는 이유로 정실부인임에도 남편으로부터 홀대당하며 친한 창기들에게서조차 갖은 모욕을 받았던 임씨는 이를 계기로 혼인 후 3년만에 처음으로 남편과 하나가 되고, 남편의 진심어린 존대를 받게 된다.

대하소설 작품 속에 나타난 여성의 시재(詩才)에 대한 인식은 여성 당사자들의 발화를 통해 사회적 통념을 드러내면서도 상당히 우호적인 관점을 드러낸다. 이런 점은 작품 안에서 시적 재능을 갖추고 실제 시작(詩作) 활동을 보이는 여성들이 대부분 주인공군 여성들이라는 것,¹³⁾ 그리고 여성의 시재(詩才)를 대외적인 자랑거리로 삼는가 하면 부부 화합의 결정적 계기로 형상화하는 것과 같은 양상으로 구체화된다.

2.2. 창작의 계기

여기서는 여성들이 시를 짓는 계기를 크게 셋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개인적으로 재능이나 소회를 표출하는 경우, 가족간의 모임에서 시를 짓는 경우, 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는 경우 등이 그것이다.

① 개인적으로 재능이나 소회를 표출하는 경우

여기서 우선 주목되는 인물은 <소현성록>의 소월영이다. 주인공 가문의 딸로 어질지 못한 남편을 만나 부부사이가 원만하지 못했던 소월영은 일 년에 칠팔 개월은 친정에서 지내는 것으로 나온다. 그래서 출가외인 이면서도 <소현성록>에서 상당히 비중 있는 인물로 그려진다. 소월영은

13) 주인공군 여성들과 대립하는 악인형 여성들의 경우 그들의 시적 재능이 구체화되는 경우가 흔치 않다. 재주가 있다 해도 <소현성록>에서 이옥주를 모해하는 정씨처럼 주인공군 여성들의 필체를 모방하여 간부서(姦夫書)를 위조하는 수준 정도로 구체화되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명행정의록>의 경우 교강선이 지은 시가 2수(권66) 있어 주목된다.

서사적으로 여러 사건 전개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뿐만 아니라 그녀의 문필 활동을 형상화한 대목들의 구체성과 다양함의 측면에서 간과할 수 없는 인물이다.

소월영은 평생 글과 그림을 벗하며 지낸다. 그녀의 서재라 할 ‘선적루’에는 산호와 유리, 옥으로 된 책상과 책거리, 문방구 등을 들여놓고, 직접 써서 갈무리한 수만 권의 책을 갖추었으며, 온갖 옛 명화를 수집해 둔 것이 수십 개 상자이다. 뿐만 아니라 만물을 직접 그린 것이 또 한 켤짜 가득이다.¹⁴⁾ 이런 소월영을 두고 작중에서는 ‘여중학사’(권12)라고 칭찬한다.

이처럼 평소 그림을 그리고, 일상사를 두고 아우 소현성과 시를 주고 받으며 뜻을 나누기도 하는 소월영은 조카들을 대상으로 미인도를 그리고 그 아래 제명을 한 후 보관한다. 그 가운데 소수빙을 그린 그림은 김현의 눈에 띄어 마침내 둘이 혼인하는 중요한 매개물이 된다.

김성이 보기를 파하고 (...) 한훤을 파흔 후 하디고 돌아가 (...) 석반을 먹은 후 고요히 안자 생각하디 내 오늘 정신이 허허야 아니 꿈을 꾸민가 분명히 그림을 짜야셔 본가 만일 진짓 일 " 단대 세상의 스람이 혹 고오니 잇거니와 엇디 혈육지신이 그대도록 흐리오 아니 소부인이 딜녀를 과도히 그려 자랑하던가 쏘 고터 혀오디 내 일이 그르다 더 한상셔의 부인이 딜녀를 그리미 불과 심등 지조를 펴미니 엇디 부허히 자랑하야 거긋 거슬 그리 " 오 <소현성록 권12>

14) 선적루 방(을) 여러주니 (...) 수십간 텅둥의 산호 유리 옥서안과 칩거리를 노코 각식 서책을츄레로 빠하 일흠 모를 거시 쉬 업고 경묘하며 기특하야 수만 권 서책이 다 박은 거시 아나 다 소부인의 친히 써 장척흔 거시라 (...) 북넉히 디모로 민든 퀘 수십이 노혀시니 열고 보니 온갖 네 명쾌 쉬 업고 우허 혼 퀘에 무수흔 그림이 다 부인의 만물을 그려 너흔 거시라 <소현성록 권12>.

소수빙의 미인도를 본 김현의 반응이다. 그림 속 여인이 너무 고와 소월영이 조카를 과장하여 그린 것인가 의심하다가 그것이 그저 소월영이 자신의 재주를 펴고자 한 것이었으니 과장일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대목이다. 직접적으로는 그림을 두고 이루어진 서술이지만 소월영이 그림을 그리고 그 아래 제명을 한 것까지 포괄하여 그녀의 문필 활동 일반을 함께 가리키는 것이라 보아도 무방하다.¹⁵⁾

특별한 계기적 사건이나 이유 없이 여성이 스스로의 재능을 펼쳐 보이는 활동으로서 그림 그리기나 시 짓기를 일삼는 것은 곧 이것이 이들의 취미생활이자 일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은 “요스이 한가하고 심히 무류하야 부절업슨 거슬 일우과라(권12)”라는 소월영 자신의 발언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이는 특별히 그 창작의 계기를 밝히지 않은 채 시 짓는 모습이 형상화된 여성 대부분에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연갑위에 시권을 두고 생활하던 <소현성록> 소운명의 아내 임씨나 자신은 시 화전을 넣어두고 지내는 소현성의 아내 석숙난, 아침 문안 후 자신의 처소에서 ‘대아를 찬한 스운 일 슈’를 써대는 <유씨삼대록> 유현의 아내 양소저 등에서도 그녀들의 시작(詩作) 활동이 일상적인 것임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시작 활동이 일상적인 것이므로 시를 통해 내면을 드러내는 경우도 볼 수 있다. 남편의 지기(知己)가 되고자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경주하던 소예주가 자기 뜻 같지 않은 현실 앞에서 시로써 그 원망과 체념의 심정을 풀어내던 것(권35)이나 손윗동서 이월혜와 소예주

15) 소수빙의 미인도 아래 쓴 제명은 다음과 같이 서술된다. “결구를 지어 써시니 필법이 기이하야 가히 그림과 혼가지 직권줄 알니러라 하여시디 이딜 슈빙이 옥이 향긋어리고 고지 말하는 터되 이시니 이 니른 완사셔즈와 쇼군왕장이라도 맛디 못하리니 운환의 빈혀 곳기를 구트여 기드릴 배 아니로다 조요의 글을 읊흐미 잭가오디 지랑은 어느고더 이셔 숙녀를 좃디 아나 하쥬의 외롭게 하나뇨 하고 그 아래 히즈로 그늘게 뿌디 영국부인 미산 소시는 작셔화하노라 하엿더라” <소현성록 권12>.

의 갈등을 지켜본 문창공주가 말로 표현하기 곤란한 소회를 시로 표현한 것(권32) 등이 그것이다.¹⁶⁾

② 가족간의 모임에서 시를 짓는 경우

이 경우는 가족 시회(詩會)를 들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이 구체화된 것은 <유씨삼대록>에서 진공의 생일날 진양공주가 여러 부인들을 모아 놓고 벌이는 시회와 <명행정의록>에서 좀더 자주 확인되는 가족 시회이다.

공췌 탄왈 (…)
 금일 형데 모다 즐기미 쏘흔 사름의 엇디 못홀 영훼라
 헛도이 날을 보내디 못하리니 테스쇼고의 친하므로써 엇디 은휘하여 슈습
홀 배 이시리오 진양이 튥년의 성문의 니강하여 널위부인의 후의를 만히
 님으매 친이하미 골육 ㄹ하여 서로 니외홀 줄을 모르고 성품이 소활하므
로써 심등의 두는 뜻이 업느니 그옥이 보건디 제부인이 즈질이 총명하고
 미목이 슈려하여 개 〃히 문치를 썩여시니 반드시 흥금의 비흔 배 적디 아
 니실디라 원컨디 금일 즐기므로써 데를 하여 스운 하나식 지어 승스를 그
록하고 타일 즈손으로 하여곰 우리 등 자취를 알게 하미 가하니 널위부인
 의 고견은 엇디 하시뇨 (…)

제부인이 사레 왈 (…)
첩 등이 임의 존명을 빗즈와 취줄을 곱초디 아나
습거니와 외람이 옥주의 츠운하시물 바라믄 목과를 더더 경거로써 갑흐를
원하느이다 공췌 미쇼 왈 즐흔 글귀 병이 만흐나 엇디 홀노 썩러디리잇고
 좌우로 필연을 나와 일 슈를 일우매 이 엇디 범속 문장으로 니르리오 회두
 스이의 스운을 일위 츠레로 벽상의 부치고 서로 칭찬하믄 마디 아니하디
 니 <유씨삼대록 권8>

진공의 생일을 맞아 외연에서는 남성들의 잔치가 진행 중이다. 이에 진양공주는 집안의 여러 부인네들을 맞아들여 시회(詩會)를 제안한다.

16) 이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서정민, 앞의 글, 78~81쪽 참고.

이 가운데 진양의 발언에서 주목되는 것은 친분을 강조함으로써 시제를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말라는 주문이다. 지극한 겸양의 뜻이 깃든 발언임을 감안하더라도 아직까지 여성이 사실(私室)을 벗어나 드러내놓고 시를 짓거나 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은 현실을 엿보게 된다.

이러한 장면에 이어 <유씨삼대록>에서는 외당에 있던 남성들이 들어와 부인들의 시 보기를 청하고 이에 여러 부인들은 ‘다 불평호여 스샤’한다. 형제간에 서열이 있겠으나 모두들 동렬간이라 부인들의 시를 내보이는 과정에서 무겁지 않은 갑론을박이 이어지는데 결국 ‘남네 비록 다르나 동그지의 이시니 제쉬 었디 우리를 너외호’냐는 말로 부인들을 설득한다.

<유씨삼대록>보다 훨씬 잦은 시회(詩會)가 형상화되는 <명행정의록>의 경우는 가문 구성원 남녀노소가 모두 모이는 가운데 시회가 열린다. 중심가문의 여성으로서는 가장 어른이라 할 수 있는 백승설의 부친 백양의 생일을 맞아 열리는 가족 시회(권49)에서 사위 위연청과 그 아들 세 사람, 그리고 이들의 아내 등이 함께 시를 짓는데, 이때 시를 지을 줄 몰라 난처해하는 낙선군주의 무안함을 고려해 낙선군주처럼 남편의 첫째부인이 아닌 교강선도 함께 시회에서 제외시킨다. 그런데 백양이 위연청의 아들 위천보와 혼인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빙심의 시제를 보고 싶어 한다. 상빙심 역시 위천보의 첫째부인이 아니었으므로 그녀에게는 적 처머느리들에게 준 것과는 다른 시제를 주어 시를 짓게 한다.¹⁷⁾

이처럼 <명행정의록>은 <유씨삼대록>에서와 같은 남녀간의 내외(內外) 분별보다는 조(祖)-부(父)-손(孫)으로 내려오는 엄격한 수직적 위계 분위기 속에서 적서(嫡庶)라는 수직적 위계를 엄격히 적용하여 각각의 참여 여부를 나누고, 또 시제(詩題)도 달리하는 등 보다 세밀한 상황을

17) 서정민, 앞의 글, 70~77쪽 참고.

그리고 있다. <명행정의록>의 시회는 그것이 가족 사회이기는 하지만 상황과 조건에 따라 그 분별의 잣대가 보다 세분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그만큼 작품 안에서 가족 사회가 빈번하게 형상화된 덕분에 가능한 것이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또한 이런 양상은 이같이 일상화된 가족 사회를 자연스럽게 수용할 만큼 작품 외적 현실이 변화, 성숙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여겨진다.

③ 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는 경우

<명행정의록>의 문창공주는 작품 안에서 가장 완벽한 여성 모델로서 형상화된다. 그녀에게서는 일체의 비례(非禮)나 성격적 결함을 찾을 수 없다. 이런 문창공주가 황실의 사치를 감당하기 위해 민폐를 일으키면서까지 무리하게 궁녀를 뽑은 것을 문제삼는 시를 황제에게 올린다.

검덕즌상고희	검쇼의 덕과 스랑흐는 은혜 상고의 드므니
타방직금진정괴	다른 쓰히서 쓰는 비단도 다 뵈틀을 굿치더라
즈황어복중견(경)한	붉고 누른 나라웃시 깃초 썰기틀 어더시니
니직즌인착포의	안히 번든 지인이 뵈웃솔 넘엇더라 <명행정의록 권67> ¹⁸⁾

이 시를 본 황제는 무리하게 뽑혀온 직녀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한편, 이들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받는 등 부당한 처사를 일삼은 관리들을 처벌한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해들은 주인공 가문에서는 곤란에 빠진 무수한 백성들을 구해낸 것이라며 문창공주를 칭송한다. 다만 이러한 문창공주의 시를 두고 그녀의 남편은 황제에게 외조에 내보이지 말 것을 청한다. 전일 여러 신하들이 올린 상소로는 처벌하지 않았던 것을 황제가 문창공주의 시 한 편을 계기로 처벌하였으니 이는 언로를 대접하

18) 이 시는 『명시중』(권82)에 실린 曹靜照의 「宮詞」를 <명행정의록>이 인용한 것이다.

는 데 어긋난다는 것이다. 그 결과 문창공주의 시는 사회 운영주체로서의 황제를 통한 공론의 장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사적으로는 그 역시 가족인 친정 황족들과 시집 식구들에게만 알려질 뿐이다.¹⁹⁾

조선후기 한글대하소설의 사회적 위상을 고려할 때 여성의 시작(詩作) 활동 자체를 부정적인 것으로 보는 현실적 통념을 바탕에 두고 여성의 시적 재능을 옹호하고 그 구체적인 양상을 형상화하는 것만으로도 큰 의의를 가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여성이 시로써 사회적 문제에 대한 소견을 밝힌 문창공주의 사례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소중한 의의를 갖는 것이라 여겨진다. 여성은 남성의 영역으로 여겨지는 바깥일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두어서는 안 되고, 여성의 영역인 것으로 인정되는 집안일에 있어서도 ‘의견을 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전통적인 유가의 규범이었다는 것²⁰⁾을 감안하면 한글 대하소설이 그려내는 이같은 사례가 겹겹의 금기를 넘어선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정치적 문제를 표현한 여성한시의 경우 규범적 태도로 분석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해 규범적 금기를 피해가고 있다.²¹⁾ 이는 그만큼 여성이 시로써 정치적 영역에 대한 관심과 의견을 표명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않은 현실이라는 점을 드러낸다. 따라서 문창공주의 시를 공론의 장으로 확산시키지 않은 작중 설정은 그만큼 독자적 현실과의 정합적 측면을 고려한 결과라 할 것이다.

한편, 이같은 문창공주의 사례가 한글대하소설 속에 형상화될 수 있었

19) 서정민, 「〈명행정의록〉의 여성 형상화 양상」,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11집,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5 3장 참고.

20) 김세은, 「통제 메카니즘으로서의 언어와 말하기-여성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언어학보』46-3호, 한국언어학회, 2002, 2장 ; 박무영, 「‘여성적 말하기’와 여성한시의 전략」, 『여성문학연구』2호, 한국여성문학학회, 1999, 2장 참고.

21) 박무영, 위의 글, 33~34쪽.

던 것은 <명행정의록>이 <소현성록>이나 <유씨삼대록>보다 조금 후대의 향유 기록을 가진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명행정의록>은 19세기 향유기록을 가진 작품인데, 이 시기에 이르면 여성의 시작(詩作) 활동이 부덕에 어긋난다는 공식적 명분이 여전한 한편 여성의 한시 창작에 대한 전면적이고 적극적인 긍정의 견해들 또한 적지 않게 제기되기 때문이다.²²⁾

3. 여성 작시(作詩)의 소통

3.1. 내외 분별의 예각화

여성의 시작(詩作) 활동을 부정적인 것으로 여기는 데는 여성이 지은 시가 외간에 유포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긴밀히 결부되어 있다. 그래서 소설 작품 안에서도 여성이 일상적으로 시를 짓는 양상을 설정하면서도 그 소통에 있어서는 남편에게조차 내보이기를 거부하는 완강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일반적으로 내외(內外)의 분별을 말한다. 그리고 내외의 분별은 남녀의 분별, 공사(公私)의 분별로 논리적 연쇄를 일으키며 다양한 범주의 여성적 규범을 논의하게 한다.

그런데 내외의 분별과 남녀의 분별은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될 때 좀더 예각화된 관점을 드러내게 된다.²³⁾

[소현성이 말하기를] 엇던 녀지런고 혜건대 셔모의 친족이로다 꽤 디왈 연후이다 사랑 왈 그런 부인을 엇던 복된 재 어덧는고 그 가뉘 상덕더니잇

22) 박무영, 위의 글, 27~28쪽.

23) 공사의 분별과 관련해서는 앞 절에서 본 바와 같이 여성의 시작(詩作) 활동이 작품 내적으로나 외적 현실에서나 공적 영역과 본격적으로 결부되었다고 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논의로 한다.

가 석패 쇼왈 이 규슈라 엇디 가뵤 이시리잇가 사랑이 문득 말을 곳치고
글을 즉시 셔모를 주고 금즈를 쓰니 원너 사랑은 성인군지라 당초 넷글로
아라 더의 주는 거슬 바다보고 그 지죄 신기흐를 항복하야 엇던 녀즈의 지
은 거신고 못다가 규등 처지를 듯고 심히 뉘웃쳐 즉시 음영흐던 거슬 노코
다시 못디 아니니 <소현성록 권1>

인용문은 석파로부터 석숙난의 시를 얻어보게 된 소현성이 서모의 친
족 어느 부인이 지은 것인 줄 알고 감상하다가 아직 결혼하지 않은 규수
라는 말에 즉시 말을 그치고 눈길을 떼는 장면이다. 소현성의 입장에서
는 다른 가문의 여성이라도 혼인한 부인의 경우라면 그 시를 보고 품평
을 할 수 있지만 혼인하지 않은 여성의 경우는 아니라는 것이다.

남성의 입장에서 이렇게 강하게 적용되는 규범은 여성에게는 훨씬 더
강력하게 작용하는 것 같다. <명행정의록>의 위혜주는 혼인 전 까치가
그녀의 시를 물고 가버린 일을 당한 이후로 크게 당황하여 이후로는 시
를 짓지 않는다. 그런가 하면 이처럼 혼인 전 여성의 시가 가문 밖의 남
성에게 보인 경우는 모두 작품 안에서 이들의 결연으로 이어진다는 점에
서 혼인 전 여성의 시가 외부 남성에게 소통되는 것과 관련한 규범의 공
고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석패 눈을 드러보니 알피 화전 일복이 잇거늘 아사 보니 신잉을 읊픈
바 쇼져의 지은 시라 석패 짐곳 스매에 녀흐니 쇼제 말려 왈 이 내의 소작
이라 아즈미 안자 보고 도로 줄 거시어늘 므슴 연고로 스매에 녀혀다가 늘
을 뵈라 흐느뇨 패 왈 내의 덕녀 한혹스 부인이 지죄 기특하야 덕슈를 못
어더 흐느니 쇼져 시전을 가(져)다가 뵈리라 쇼제 본더 월영의 지조를 드
런 디 오란디라 소싱과 의혼흐를 모르고 널오디 이는 규등필적이니 소경
이 보면 고이히 너기리니 곳튼 녀지니 한싱 쳐는 보와도 관겨터 아니커니
와 스세 비편흐니 가져가디 말나 <소현성록 권1>

인용문은 소현성과의 중매를 위해 그 서모 석파가 자신의 친정에서 석숙난의 시를 가져가는 장면이다. 석파의 그런 계획을 알지 못하는 석숙난은 다른 집안의 남성 소현성이 볼까봐 불안해 하지만 소월영에게 보일 것이라는 석파의 말에 강하게 만류하지는 못한다. 여기서 규수의 시를 가문 외부의 사람에게 보이는 경우 같은 여성끼리는 무방하다는 인식을 석파나 석숙난이 공유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여성의 시가 같은 여성들끼리라면 가문 밖으로도 소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여성의 입장에서 남자에게 자신의 시를 내보이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적절하지 않다. 혼인 전은 물론이고 혼인한 후 남편에게조차 자신의 시를 보이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 그런 한편 같은 여성에게라면 가문 밖으로의 소통이라도 무방하다. 반면 남성의 입장에서 혼인한 여성이 지은 시라면 다른 가문의 여성이 지은 것이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아직 혼인하지 않은 여성이 지은 시를 접하는 것은 남성으로서도 삼가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혼인한 여성의 시를 두고 남성과 여성이 서로 다른 규범적 인식을 보인다는 점이다. 여성에게 훨씬 엄격한 잣대임은 물론이다.

3.2. 병풍의 제작을 통한 보존

조선시대 여성의 한시는 그것이 여성의 할 일이 아니라는 규범적 제한 속에서 그리 많이 남아 있지 않다.²⁴⁾ 기본적으로 여성에게 한문 교육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이 한시를 지을 만한 소양을 갖추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여성을 대상으로

24) 조선시대 여성 한시 자료의 전반적 상황과 그 특색에 관해서는 김명희, 『조선시대 여성 한시 문학사』, 『동방학』9집,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03; 문희순, 『시화에 구현된 사대부가 여성 한시의 미적 특질』, 『한국언어문학』62집, 한국언어문학회, 2007 참조.

지어진 제문 등의 기록에서 오늘날 우리는 실제 한시를 남긴 여성들보다 훨씬 더 많은 여성들이 한문학적 소양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바로 그 기록들에서 많은 여성들이 시를 알고 또 짓기도 하였으나 스스로 없애버렸다는 사실 또한 볼 수 있다.²⁵⁾ 이처럼 여성들 스스로 자신의 작품을 없애버린 것은 여성의 시작(詩作) 활동이 기본적으로 부덕(婦德)에 부합하는 활동이 아니었다는 점과 더불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에게 더욱 엄격하게 작용했던 소통에 관한 제한 인식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자신의 시가 기록으로 남아 원치 않는 뜻밖의 소통 상황을 맞을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이같은 현실 속 여성들의 전형화된 행동 패턴들이 한글 대하소설에서는 크게 의식되지 않고 있어 흥미롭다. 작품 속 많은 여성들이 시 짓기를 일상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들은 자신들의 작품이 보존되어 빛어질 수 있는 불상사에 대해서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보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 현실과 소설작품 속 현실의 거리는 더욱 멀게 느껴진다.

시는 성정의 나니 가히 고치디 못흐시려니와 홀노 촌세의 복이 구원티 못흐를 감읍흐옵느니 옥썴의 신명흐시므로써 엇디 아디 못흐시리오마는 이런 말이 엇디 잇느니잇고 공쥬 옷기술 녀미고 추연 왈 세시 거의라 진양 이 므음이 임의 슬쁘니 글이 엇디 홀노 즐겨오리잇고 슈연이나 상공의 놓호신 시감과 붉은 지식을 탄복흐옵느니 금일 즐겨오를 후일의 엇디 생각디 아니리잇고 (...) 공쥬 기용화기하여 다시 쥬찬을 나와 달난하여 즐기고 제부인 글을 니어 촌례로 병풍을 민드러 공쥬 침변의 두고 심히 사랑하더라 <유씨삼대록 권8>

인용문은 앞서 본 바 진양공주가 진공의 생일을 맞아 벌인 시회 이후

25) 앞의 주1) 참고.

외당의 남자들이 들어와 시를 얻어본 후의 서술이다. 이 자리에서 쓴 진양공주의 시에는 자신의 오래 살지 못할 것임을 스스로 알고 슬퍼하는 심사가 서려있음을 밝히고 있다. 진양공주가 자신의 죽음을 스스로 예견하는 상황에서 진양공주는 오늘의 즐거움을 후일 기억하고자 여러 부인들의 시를 차례로 병풍을 만들어 둔다. 진양공주의 죽음이라는 비감(悲感)은 오늘의 즐거움과 대비되는 가운데 더 강력해지고 이어지는 후일의 기억은 그래서 더 절실하다.²⁶⁾

이처럼 죽음을 예견하고 후일의 기억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모습²⁷⁾은 현실 기록 속의 많은 여성들이 특히 노년이나 죽음에 임하여 자신의 작품을 없애버렸다는 대목과 관련지어 볼 때 묘한 겹침과 어긋남이 감지되는 대목이다. 때문에 소설 속에 형상화된 병풍 제작이 여성들의 시 작품이 기록, 보존될 수 있는 현실 속 또 하나의 통로일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4. 의의 및 결론

본고에서는 조선후기 향유된 한글대하소설을 대상으로 작중에 형상화된 여성의 시작(詩作) 활동과 관련된 양상들을 살펴보았다. 시를 짓는 것은 부덕(婦德)에 어긋난다는 당대 현실 규범을 적절히 견제하면서 한글대하소설에서는 긍정적인 인물로 그리는 많은 주인공 여성들의 시

26) 여성이 지은 시를 가지고 병풍을 만드는 양상은 <명행정의록>에서도 볼 수 있다. 앞서 본 백양의 생일을 축하하는 사회에서의 작품을 모아 병풍을 만들고(권48~49), 선물 받은 매화 화분을 두고 일가가 지은 시를 모아 병풍을 만들기도 한다(권12). 매화 화분을 두고 별인 사회에서는 가족구성원 모두가 참여하지만 실제 시가 서술된 것은 여성들만의 작품이다.

27) 작품 안에서 이 병풍은 후일 원상궁이 유현 부부에게 내보이며 과거사를 회상하는 장면에서 다시 등장한다(<유씨삼대록> 권10).

작 활동이 일상화된 모습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이런 가운데 여성 작시(作詩)의 소통과 관련한 구체적인 상황 설정을 보여줌으로써 여성 작시의 소통이 내외의 분별로 제한된다는 것 이상의, 보다 예각화된 소통의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한문학적 소양을 갖추고 시를 쓴 당대 현실 속 여러 여성들이 스스로 자신의 작품을 없애버렸다는 전형화된 기록의 양상과는 달리, 소설 작품 속에서는 그러한 함장(含章)의 덕에 대한 관심이나 고려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 나아가 소설에서는 오히려 여성들의 시로써 병풍을 제작하여 남기기도 한다는 점에서 현실과 작중 현실의 거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조선후기 한글대하소설이 이처럼 당대 현실과 일정한 거리를 보이는 여성의 시작(詩作) 양상을 형상화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한글대하소설의 발흥과 거의 동시기적으로 확인되는 중국 재자가인소설(才子佳人小說)의 수용과 이에 대한 사대부가 여성들의 독서경험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소현성록>의 향유 시기는 물론이고 한글대하소설의 발흥 시기 추론과 관련해 중요한 기록으로 거론되는 권섭의 모친 용인이씨의 소설분배 기록에 <소현성록>과 <호구전>이 나란히 언급된다는 점은 주목을 요한다.

그간 한글대하소설에 미친 <호구전>이나 <옥교리> 등의 중국 재자가인소설의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은 소설사적인 측면에서 다소 갑작스럽기까지 한 한글대하소설의 발흥 배경을 규명하려는 관점에서 주로 서사적 측면에서의 상동성에 논의의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²⁸⁾ 본고를 통해 볼 때 한글대하소설을 둘러싼 중국 재자가인소설의 영향은 작품의 소재나 모티프 등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28) 박영희, 「17세기 才子佳人小說의 수용과 영향-〈호구전〉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4집, 1998; 송성욱, 「17세기 중국소설의 번역과 우리소설과의 관계」, 『한국고전연구』7집, 2001.

□ 참고문헌

- <소현성록>, 이화여대 소장본 15권15책.
<유씨삼대록>,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20권20책.
<명행정의록>,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소장본 70권70책.
심능숙, <옥수기>(김기동 편, 『필사본고소설전집』권11, 아세아문화사, 1982, 745~747쪽).
홍희복, 『제일기언』, 박재연·정규복 교주, 국학자료원, 2001, 21~24쪽.
<중앙일보>, 1966년 8월 25일자.
- 구지현, 「김성달 집안의 문학적 공간과 교류」, 『열상고전연구』16집, 열상고전연구회, 2002, 39~62쪽.
구지현, 「시선집 『우진(宇珍)』과 김성달 집안의 여성문학적 전통」, 『열상고전연구』15집, 2002, 55~83쪽.
구지현, 「『安東世稿 附聯珠錄』소재 작품의 작가와 시작시기 및 이를 통해 본 김성달 집안의 詩作活動 樣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9집, 2004, 45~83쪽.
권성민, 「玉所 權變의 국문시가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92, 1~84쪽.
김경미, 「18세기 양반여성의 글쓰기의 층위와 그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11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5, 5~50쪽.
김명희, 「조선시대 여성 한시 문학사」, 『동방학』9집,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03, 97~121쪽.
김세은, 「통제 메카니즘으로서의 언어와 말하기-여성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언어학보』46-3호, 한국언어학회, 2002, 80~115쪽.
문희순, 「사회에 구현된 사대부가 여성 한시의 미적 특질」, 『한국언어문학』62집, 한국언어학회, 2007, 259~286쪽.
박무영, 「여성시문집의 간행과 19세기 경화사족의 욕망-『정일당유고』의 간행을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33집, 한국고전문학회, 2008, 369~406쪽.
박무영, 「18세기 祭亡室文의 공적 기능과 글쓰기」, 『한국한문학연구』32집, 한국한문학회, 2003, 317~352쪽.

- 박무영, 『『호연지유고』와 18세기 여성문학』, 『열상고전연구』16집, 열상고전연구회, 2002, 63~89쪽.
- 박무영, 『金浩然齋의 생애와 『호연지유고』』,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3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1, 97~125쪽.
- 박무영, 『여성적 말하기와 여성한시의 전략』, 『여성문학연구』2호, 한국여성문학학회, 1999, 15~42쪽.
- 박영희, 『장편가문소설의 향유집단 연구』, 한국고전문학회 편, 『문학과 사회집단』, 집문당, 1995, 319~361쪽.
- 박영희, 『17세기 才子佳人小説의 수용과 영향-〈호구전〉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4집, 1998, 181~203쪽.
- 백두현, 『조선시대 여성의 문자 생활 연구』, 『진단학보』97호, 진단학회, 2004, 139~187쪽.
- 서정민, 『〈명행정의록〉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6, 1~238쪽.
- 서정민, 『〈명행정의록〉의 여성 형상화 양상』,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11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5, 279~300쪽.
- 송성욱, 『17세기 중국소설의 번역과 우리소설과의 관계』, 『한국고전연구』7집, 2001, 70~93쪽.
- 심경호, 『낙선재본 소설의 선행본에 관한 일고찰-온양정씨 필사본 <옥원재합기연>과 낙선재본 <옥원중회연>의 관계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38호, 한국학중앙연구원, 1990, 169~188쪽.
- 이경하, 『17세기 士族 여성의 한문 생활, 그 보편과 특수』, 『국어국문학』140집, 국어국문학회, 2005, 101~120쪽.
- 정길수, 『한국 고전장편소설의 형성 과정』, 돌베개, 2005, 1~379쪽.
- 조혜란, 『〈소현성록〉의 보여주기 서술과 그 의미』, 『한국고전연구』17집, 2008, 217~264쪽.

Abstract

A Study of Women's hanmun poetry in Korean roman-fleuves

Seo, Jung-min

This study analyzed the aspects of women's hanmun poetry in Korean roman-fleuves that were read in the second half of the Chosun Dynasty. At that times, people had a poor opinion that woman composed a poem because it was against the womanly virtues. As the result, we have many records that the lettered women wrote poetry privately and exterminated their works. But the heroines enjoyed poetry as everyday affairs. These scenes confirm the detailed aspects of the way women's poetry were communicated which were not revealed in the real records.

key words : the second half of the Chosun Dynasty, Korean roman-fleuves, Woman, hanmun poetry

- 본 논문은 10월 31일에 접수되어 11월 8일부터 20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11월 26일에 게재 확정되었음.